

2007 남북정상회담

■ 광주·전남 주민들 반응

‘차분한 환영’ 내실있는 결과 기대

“반세기 넘게 동족의 허리를 갈라놓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걸어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걸음이 한반도 통일의 길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첫날인 2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발판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길 바랐다.

지난해 5월 광주에 정착한 새터민 김영애(가명·여·62)씨는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며 “집착도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져 고향땅에 닿아있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눈물을 흘렸다.

황해도가 고향인 현덕보(91·영암군 회문리)씨는 “죽기 전에 한번 만이라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고 손자 녀석들 손도 직접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고향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YMCA’ 남부원(48) 사무총장은 “남북 평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북한 내 공간 확대 등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들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대통령 발길 통일의 길로 이어지길 경제 협력·교류·이산 상봉 활발하게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위원회 광주·전남 본부’ 장화동(45) 집행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더욱 활발한 남북 교류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하며, 국회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선언과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오경교 사

무국장은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이산가족 상봉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임채완(57) 교수는 “평화협정 체결과 핵문제 해결 등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형우(26·조선대 법학과)씨 “남북 대학생 체육대회 또는 남북 대학생 수학 올림피아드 등 젊은 이들이 자주 만나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라이트 전국연합 광주·전남연합 방연화(53) 상임대표는 “대선을 불과 2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려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남북정상회담은 국민적 합의 도출과 투명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이은미·김필상기자 kroh@kwangju.co.kr



2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시·도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남진장흥농협 조합장 선거

선관위, 금품 제공 수사 의뢰

장흥군선관위(위원장 김학준)는 “오는 6일 실시되는 정남진장흥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과 음료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A씨와 직원 B씨를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7~8월께 병문안을 명목으로 조합원 C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금 10만원과 음료수 한 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재해보상금 노려 위증

50대 농민 징역 6개월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2일 자신이 이미 매도한 축사의 재해보상금을 노리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강모(57·농업)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축사를 팔아넘긴 뒤 축사 매수인 앞으로 폭설 피해복구비가 나오자 복구비를 노리고 ‘축사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임대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증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5년 3월 영광군 불갑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 1천437㎡ 등을 A씨에게 판 뒤 같은 해 12월 폭설로 축사가 파손돼 A씨가 이를 신속하면 서 영광군으로부터 8천8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되자 관련 민사 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 축사의 명의를 소유주인 처남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피해복구비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이기도록 “A씨에게 축사를 임대해줬다”고 위증했다. /최권일기자 cki@

보성 연쇄살인 현장검증

어선 갑판 머리카락 34 올 DNA 검사

보성 회천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보성경찰은 2일 피의자 오모(70·여부)씨의 11차례 FRP어선에서 찾아낸 머리카락 34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DNA 성분검사를 통해 오씨에 의해 살해된 안모(여·23·인천시 남동구)씨 등 4명 이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보성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오씨의 범행 장소인 회천면 우암마을과 회천 앞바다 등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오씨는 ▲피해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장면 ▲어선에서의 몸싸움 ▲물속 피해자들에게 갈고리를 휘두르는 모습 등을 묵묵히 재연했다.

사건의 과정이 큰 탓인지 인근 주민 100여명도 몰려나와 현장 검증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남해해양경찰청은 이날 “어수해경의 초동수사 미흡과 변사체에 대한 부검에만 집중하고, 수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범행을 재연하고 있는 보성 회천 살인사건의 용의자 오모(70)씨.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니원침 (7321) 김종두



Advertisement for KCC products including DS건설, KCC방호, and (주)본드나리.

‘관광 보성’ 찬물

연쇄살인 여파... 전어축제 관광객 ‘뚝’

70대 어부의 업거적인 연쇄 살인 행각으로 녹차·전어 등 먹거리 관광의 1번지인 보성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겼다.

2일 오후 보성군 회천면에서 막을 올린 ‘제4회 보성 전어축제’는 전년에 비해 관광객이 50% 이상 줄어, 축제장이 썰렁했다.

주민들은 최근 태풍 ‘나리’로 100억 여원의 피해를 본데다 ‘전어축제’마저 살인 사건 여파로 관광객들이 외면해 관광수입이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활어유통업을 하는 박모(65·회천면 우암리)씨는 “살인 사건이 매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최근 5일 동안 활어가 팔리지 않

아 일손을 놓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보성을 찾았다가 ‘연쇄 살인사건’이 알려지면서 발길을 돌리는 일부 관광객도 속출하고 있다.

보성읍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여·41)씨는 “3일 전 가게에 찾아온 관광객 부부가 울포 바닷가에 가려다 ‘살인사건’ 기사를 보고 무서워서 그냥 간다”고 했다”며 한숨지었다.

보성군은 이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에 대한 친절 및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회천면 일대 상가·민박집 주민들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타계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성=인현주·안구일기자 ahj@

수학여행 고교생들 제주서 패싸움



○광주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교생들이 충주에서 온 고교생들과 사소한 시비 끝에 집단 난투극을 벌여 강력반 형사들이 출동하고 경찰 급급 헬기가 뜨는 등 소동.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께 한라산에서 광주 K고 1학년 김모(17)군 등 3명이 마주오면 충북 충주지역 모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과 패싸움을 벌여 김군의 입술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

○등산객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싸움이 커질 것을 우려해 강력반 형사 14명을 현장에 급파하고, 경찰 헬기를 띄워 부상한 김군을 후송.

○광주 학생들은 “하산 길에 올라오는 충주 학생들이 쩌려왔고, 수학여행을 왔으면 1학년일 텐데 2학년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시비가 붙었다”고 주장했다. /이종형기자 golee@

Large advertisement for 'Gas-hwal-myeong-su' (가스활명수) featuring a woman and a bottle of the product. Text includes '저도 가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and '11가지 생약성분-부채표 가스활명수큐!'.